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의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김기철¹

A Study of the Effects of Todd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the Development of Vocabulary Ability*

Kim, Ki Cheoul¹

본 연구에서는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I시에 위치한 47개 어린이집의 18~24개월 영아 299명과 어머니이다. 연구결과 첫째, 영아의 기질과 어휘력의 관계를 기질의 구성차원별로 살펴보면, 접근-회피와 적응성, 기분은 이해 및 표현어휘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반응강도는 이해어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휘력의 관계를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수적 양육행동과 긍정관계선 설정 양육행동은 이해 및 표현어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 대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을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이해어휘에 대해서는 접근-회피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수적 양육행동, 반응강도, 기분의 순으로 설명력이 나타났다. 표현어휘에 대해서는 교수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기분, 반응강도, 활동성 순으로 설명력이 나타났다. 영아 어휘력 발달에 있어서 이해어휘는 영아의 기질인 접근-회피가, 표현어휘는 어머니 양육행동인 교수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임이 밝혀져, 어머니는 영아의 이해어휘 발달을 위해 기질에 적합한 상호작용과 표현어휘 발달을 위해 사물과 사건의 특성에 대해 말로 표현해 주는 양육행동을 하여야겠다.

주제어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아의 어휘력

* 본 논문은 2014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¹ 제1저자(교신저자):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E-mail: kckim@wu.ac.kr)

I. 서론

인간의 생애사에서 영아기는 급진적 어휘력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영아기 어휘력 발달은 울음소리의 분화로부터 시작되다가 몸짓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주의집중과 더불어 한 단어, 두 단어, 문장을 구사하는 순서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4). 영아 발달의 모든 영역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데, 특히 어휘 습득과 같은 인지적 발달은 이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영아가 기본적으로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영아기의 언어는 이해어휘와 표현어휘로 구분할 수 있다. 영아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어휘와 영아의 생각 및 의도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어휘로 구분되는데(Goswami, 2010), 영아의 초기 언어의 특징은 이해어휘가 표현어휘보다 2배 정도 빠르게 발달한다(Owens, 2013). 이해어휘는 영아의 단어 의미 인식만 요구되지만, 표현어휘는 영아의 회상 또는 기억 속에 있던 단어와 개념에 대한 통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Huttenlocher, 1974). 영아에게 언어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배우며 세상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이 되어 언어를 이루는 이해어휘와 표현어휘는 영아의 전인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아는 출생 후 10개월경 첫 단어라는 어휘(lexicon)를 산출하게 되며, 어휘를 통해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 및 생각을 표현하게 되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면서 조직화된 어휘를 선택하게 된다(Justice, Bowles, Pence, & Gosse, 2010). 첫 단어 산출 이후 영아의 어휘는 이해와 표현의 양 측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8~24개월경에는 ‘언어 폭발적 팽창기’로 표현어휘가 50개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여 두 단어 문장을 말하게 된다. 24~36개월에는 영아의 어휘가 더욱 확장되어 30개월 여아는 약 600개, 남아는 약 540개 정도의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며, 두 단어에서 세 단어의 표현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어를 습득하는(Hoff, 2001) 어휘 발달의 과도기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아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 개별 특성의 능동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알아 볼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즉, 어휘력 발달 주체인 영아의 능동적 역할의 중요시함으로써 영아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영아의 어휘력 발달을 영아의 원초적으로 배태된 조건인 기질과 후천적인 환경 요인인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Baumrind, 1993; Fox, Levitt, & Nelson, 2010)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영아의 내적 요인으로 기질이 대두되었다(신애선, 2014). 모든 영아가 말을 할 수 있는 적성을 타고나지만 각 영아들의 성격이나 환경, 언어와 함께 한 경험 또는 문화모델의 다양성으로 언어 발달에 개인차가 나타난다(강옥경, 김명순, 2011). 영아의 기질과 어휘력 발달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활동성이 낮을수록 이해 및 표현언어 능력이 높아져(신애선, 2014), 기질은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장유경, 이근영, 2006). 이를 뒷받침하는 장유경과 성지현(2011)의 연구에서 어휘력은 영아의 월령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기분뿐 아니라 기질의 더 다양한차원이 관계된다고 보고하였다. Bloom(1993)의 연구에서 언어와 정서의 요인이 기질의 하위요소들과 공통적이 부분에 있어서 영아의 정서표현이 중립적이면 어휘습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이 많게 되어 언어 발달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영아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정서의 표현에 많은

주의의 자원을 사용하여 어휘학습에 사용할 주의의 자원이 적게 되어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정서 상태에 따라 영아 간의 어휘학습에서 차이가 나타났다(Bloom, Beckwith, & Capatides, 1988). 여러 연구들에서 보여주듯이 영아의 긍정적 기질은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 도움이 되며, 부정적 기질은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를 통해 영아의 기질이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다(김현, 2010; Fox, Levitt, & Nelson, 2010). 어머니 양육행동이란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김현, 2010), 어머니는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신애선, 2015;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최선녀, 2015; Baumrind, 1996).

어머니의 풍부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영아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영아에게 어머니의 언어는 효과적인 학습 매체가 되고 영아는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 관심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Berk, 2012). 영아들은 언어발달에 관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독특한 시기이므로(Hoff, 2003), 언어적 교수가 일어나는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서 성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영아에게 언어적인 적절한 비계를 설정하고 언어의 다양한 의미를 배우고 습득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제1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Vygotsky, 1978). 이렇듯, 언어습득이 생애 초기인 영아기에 상당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머니는 영아와의 언어적 교수안에서 영아를 격려하고 지지해주어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교량 역할을 해준다. 또한, 어머니는 영아와의 상호 호혜적인 경험을 통해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영아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언어 및 인지발달은 물론 사회·정서발달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크다(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Coleman, Trent, Bryan, King, Rogers, & Nazir, 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준다(Baldwin, 2000).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Whitehurst, Falco, Lonigan, Fischel, Debaryshe, Valdez-Menchaca, & Caufiels, 1998)과 언어적 입력 양이 많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할수록(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성현란, 2003; Hoff & Naigles, 2002) 영아의 초기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주어, 영아에게 주어지는 언어적 자극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이후 유아기 언어 능력과 관련이 높음이 밝혀지고 있다(Huttenlocher, Haight, Bryk, Selter, & Lyons, 199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은 영아의 어휘력 발달과 관계가 있다.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만 0, 1, 2세의 혼합월령의 영아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관계 및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거나(김말경, 2011; 김미정, 이경님, 2011; 김영실, 신애선, 2013; 최선녀, 2015), 영아와 유아 혼합월령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김미정, 이경님, 2011; 하지영, 2004), 어머니 양육행동과 영아 기질의 하위요인 중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엄성애, 2003). 이 외에도, 어머니 양육행동과 기질의 관계 분석 연구가 있었지만 영아가 아닌 유아 대상으로(박재운, 2013), 넓은 연구대상이나 단일하지 않은 월령 범위로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영아 어휘력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월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영아 발달상에 따른 연구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아의 월령을

제한하여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아 어휘력과의 관계를 밝히고, 영아 어휘력 발달에 있어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발달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영아의 ‘언어의 폭발적 팽창기’로 어휘가 급속히 발달하는 18~24개월의 영아들로 월령을 제한하여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 어휘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 영아 어휘력 발달에 대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영아의 최적의 어휘력 발달을 위하여 영아의 내적 특성인 기질에 조화롭고 적합한 양육 환경을 탐색하고 제안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영아의 어휘력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위한 부모 교육이나 언어 발달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는 영아들을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18~24개월 영아의 기질과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의 관계는 어떠한가?
2. 18~24개월 영아의 어머니 양육행동과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의 관계는 어떠한가?
3. 18~24개월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의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1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47개 기관에 다니는 18~24개월 영아 326명이다(남아 118명, 여아 208명)과 해당 영아 어머니 326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의 평균 월령은 21.5개월이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2세로 고졸이하의 학력 97명, 전문대 이상이 336명, 전업주부는 327명, 취업모는 106명이었다. 어머니용 질문지 350부를 담임교사의 협조로 영아를 통해 배부하고 2주일 후 영아를 통해 326부를 회수(회수율 93%)하였다. 그리고 불성실 답변 27부를 제외한 299부가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영아의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 영아의 어휘력(이해어휘, 표현어휘)이다.

1) 영아의 기질

영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백경숙(1996)이 번안한 Toddler Temperament Scale(TTS)를 사용하였다. TTS는 Toddler Temperament Questionnaire(TTQ: Fullard, McDevitt, & Carey (1984)의

9가지 기질 구성 차원을 Saslow(1993)가 5가지 구성 차원으로 수정한 도구이다. TTS는 어머니가 측정하는 것으로 활동성(activity), 접근-회피(approach-withdrawal), 적응성(adaptability), 반응강도(intensity), 기분(mood) 등 5개 영역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 응답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고 부정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문항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값은 .81을 나타냈다. TTS 하위요인의 정의와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TTS의 하위요인 내용과 신뢰도

하위요인	하위 요인 및 높은 점수의 의미와 예	문항수	신뢰도
활동성	신체 움직임이 많음(1=낮음, 6=많음) 예) 이야기를 듣거나 그림책을 볼 때 가만히 있지 못한다.	11	.73
접근-회피	새로운 자극에 접하면 위축됨(1=접근적, 6=회피적) 예) 낯선 사람이 봐주려고 하면 울거나 엄마에게 매달린다.	12	.81
적응성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성이 낮음(1=높음, 6=낮음) 예) 부모가 옆에 있어도 낯선 장소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한다.	9	.69
반응강도	반응표현이 격렬함(1=약함, 6=강함) 예) 하던 일이 잘 안되면 큰소리로 울거나 발을 구른다.	10	.75
기분	부정적 기분을 많이 지님(1=긍정적, 6=부정적) 예) 잠에서 깨어나면 찡그리거나 칭얼대거나 혹은 운다.	13	.67
전체		55	.81

2) 어머니 양육행동 도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Galperin과 Pecheux(1996)이 개발한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PSQ)'를 사용하여 실제 양육행동에 관련된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세 가지 양육행동 요인 즉, 사회적, 교수적, 긍정 한계선 설정 양육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 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는데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전체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값은 .75를 나타냈다. PSQ 하위요인의 정의와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PSQ의 하위요인 내용 및 신뢰도

구분	하위 요인의 예	문항수	신뢰도
사회적 양육행동	어머니-자녀의 대인 관계적 교환의 정도 예)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8	.76
교수적 양육행동	자녀에게 배우고 모방하고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건과 사물의 특성에 대하여 자극을 주는 정도 예) 나는 내 아이가 혼자 탐색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	5	.70
긍정한계선 설정	자녀에게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치는 정도	4	.78

양육행동	예) 나는 내 아이에게 규칙 지키기와 예의를 강조해서 가르친다.		
전체		17	.75

3) 영아의 어휘력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도구로 MCDI-K(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 Infant & Toddlers)를 사용하였다. MCDI-K는 Fenson, Dale, Reznick, Bates, Thal과 Pethick(1994)이 개발한 어휘발달 평가도구를 배소영(2003)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MCDI-K는 어머니의 보고식 검사로 검사지에 기록된 단어를 영아가 정확히 말을 할 수 있거나 거의 유사하게 말할 수 있으면 ‘표현’에 표시하고 영아가 말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해’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영아의 표현어휘 점수는 ‘표현’에 표시된 단어의 수를 합하고 이해어휘 점수는 ‘이해’에 표시된 단어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총점은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휘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MCDI-K는 총 284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며 18개의하위 범주별 어휘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최은희, 2000; Pae, 1993)에서 12~30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MCDI-K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예비 조사에 참가한 연구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영아 어머니에게 MCDI-K를 작성하게 하고, 3일 후에 다시 MCDI-K를 작성하게 하였다. 두 번의 검사에 대한 재검사 신뢰도는 $r = .85$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측정도구들의 적절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아 2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5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문항은 문장을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린이집 47기관을 방문하여 재원중인 영아의 어머니 350명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안내한 후 어머님으로부터의 연구 승인을 받아 질문지를 배부 후 평정하게 하였고, 2주일 후 영아를 통해 회수되었다. 질문지에 대한 어머니의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검사 실시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원장 또는 교사에게 유의점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전달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 2번을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고, 연구문제 3번을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영아의 기질과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의 관계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영아의 기질과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아의 기질과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의 관계 (N=326)

구분	이해어휘	표현어휘	언어전체
영아의 기질			
활동성	-.01	.09	.05
접근-회피	-.28**	-.24**	-.28**
적응성	-.25**	-.21**	-.25**
반응강도	.22**	.10	.17*
기분	-.24**	-.24**	-.27**

* $p < .05$, ** $p < .01$.

영아 기질의 구성차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접근-회피는 이해어휘($r = -.28, p < .01$), 표현어휘($r = -.24, p < .01$), 전체어휘($r = -.28, p < .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적응성은 이해어휘($r = -.25, p < .01$), 표현어휘($r = -.21, p < .01$), 전체어휘($r = -.25, p < .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응강도는 이해어휘($r = .22, p < .01$), 전체어휘($r = .17, p < .05$)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분은 이해어휘($r = -.24, p < .01$), 표현어휘($r = -.24, p < .01$), 전체어휘($r = -.27, p < .01$)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영아가 새로운 자극에 접근적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잘하며 긍정적인 기분을 많이 지닐수록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수가 많고, 반응표현이 강할수록 이해어휘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2. 어머니 양육행동과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 간의 관계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어머니 양육행동과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양육행동은 언어전체($r = .14, p < .05$)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교수적 양육행동은 이해어휘($r = .25, p < .01$), 표현어휘($r = .38, p < .01$), 전체언어($r = .37, p < .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긍정한계선 설정 양육행동은 이해어휘($r = .14, p < .05$), 표현어휘($r = .30, p < .01$), 전체언어($r = .26, p < .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배우고 모방하고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건과 사물의 특성에 대하여 자극을 주는 정도와 자녀에게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치는 정도가 많을수록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표 4> 어머니 양육행동과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의 관계 (N=326)

구분		이해어휘	표현어휘	언어전체
어머니 양육행동	사회적 양육행동	.08	.17	.14*
	교수적 양육행동	.25**	.38**	.37**
	긍정관계선 설정양육행동	.14*	.30**	.26**

* $p < .05$, ** $p < .01$.

3.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의 이해어휘에 미치는 영향력

영아의 이해어휘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을 알아보고자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과정 중의 하나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해 본 결과 VIF는 1.71-3.23으로 모두 10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321-.622로 모두 1을 넘기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이해어휘에 대해 영향을 주는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는 접근-회피가 투입되어 $R^2=.08$ 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교수적 양육행동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R^2=.18$ 로 .10만큼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는 반응강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R^2=.21$ 으로 .03이 증가하였다. 4단계에서는 기분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R^2=.25$ 로 .04만큼 증가하였다. 영아의 이해어휘에 영향을 주는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은 접근-회피, 교수적 양육행동, 반응강도, 기분이 2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적합도

<표 5>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의 이해어휘에 미치는 영향 (N=326)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2	ΔR^2	F
이해어휘	(상수)	261.14		18.71***	.08	.08	20.00***
	접근-회피	-21.02	-.28	-4.48***			
	(상수)	160.34		7.15***	.18	.10	26.63***
	접근-회피	-27.17	-.36	-5.95***			
	교수적 양육행동	32.78	.34	5.54***			
	(상수)	93.84		3.21**	.21	.03	22.51***
	접근-회피	-26.09	-.35	-5.83***			
	교수적 양육행동	32.49	.33	5.62***			
	반응강도	19.36	.20	3.44***			
	(상수)	99.46		3.49***	.25	.04	21.20***
	접근-회피	-11.61	-.15	-1.98			
	교수적 양육행동	35.94	.37	6.30***			
반응강도	26.62	.27	4.57***				
기분	-34.16	-.30	-3.69**				

* $p < .05$, ** $p < .01$, *** $p < .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 21.20, p < .001$). 접근-회피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수적 양육행동, 반응강도, 기분의 순으로 설명력이 나타나 이해어휘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영아 기질의 구성차원 중 접근-회피의 설명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4.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의 표현어휘에 미치는 영향력

영아의 표현어휘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을 알아보고자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의 표현어휘에 미치는 영향 (N=326)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²	ΔR^2	F
표현어휘	(상수)	-103.17		-3.32***	.14	.14	40.45***
	교수적 양육행동	54.05	.38	6.36***			
	(상수)	-2.80		-.09	.27	.13	44.39***
	교수적 양육행동	68.58	.49	8.39***			
	기분	-62.14	-.37	-6.43***			
	(상수)	-79.40		-2.02	.30	.03	34.58***
	교수적 양육행동	70.27	.50	8.77***			
	기분	-69.08	-.41	-7.14***			
	반응강도	26.31	.19	3.34**			
	(상수)	-134.03		-2.84	.31	.01	27.36***
	교수적 양육행동	72.85	.52	9.04***			
	기분	-68.78	-.41	-7.15***			
반응강도	19.71	.14	2.33***				
활동성	22.06	.12	2.07*				

* $p < .05$, ** $p < .01$, *** $p < .001$.

영아의 표현어휘에 대해 영향을 주는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는 교수적 양육행동이 투입되어 $R^2 = .14$ 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기분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R^2 = .27$ 로 .13만큼 증가하였고, 3단계에서는 반응강도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R^2 = .30$ 로 .03이 증가하였다. 4단계에서는 활동성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R^2 = .31$ 로 .01만큼 증가하였다. 영아의 표현어휘에 영향을 주는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변인은 교수적 양육행동, 기분, 반응강도, 활동성이 3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 27.36, p < .001$). 교수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기분, 반응강도, 활동성의 순으로 설명력이 나타나 표현어휘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교수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언어의 폭발적 팽창기’로 어휘가 급속히 발달하는 18~24개월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 어휘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 영아 어휘력 발달에 대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과 영아의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의 관계를 영아 기질의 구성차원별로 살펴보면, 접근-회피는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영아가 새로운 자극을 회피하지 않을 때 영아의 이해어휘 습득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4)와 유사하며 순한 기질의 영아가 회피 정도가 적어서 어머니와 온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연구(Lee & Bates, 1985)결과와 일관된다. 순한 기질의 영아 특성이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고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간다(유희정, 2008). 본 연구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어른과 잘 놀고, 집에 낯선 손님이 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새로운 환경(낯선 집, 가게, 놀이터)에 가도 10분 이내 곧 익숙해지는 등의 영아들이 접근적인 기질로 구분되어 새로운 자극에 접근적인 영아들이 그 과정에서 말을 걸어 표현어휘가 높게 나타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해어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적응성은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13개월 영아들의 적응성이 20개월이 되었을 때의 표현언어 발달을 예언할 수 있었다는 연구(Dixson & Smith, 2000)결과와 18~24개월에 걸친 영아의 기질과 어휘력에 관한 종단연구에서 이해어휘와 적응성이 관련이 높았다는 연구(장유경, 최유리, 이근영, 2007)결과와 일치하다. 본 연구대상의 영아들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걸음마기 영아들로 걸을 수 있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져 새로운 방법으로 환경을 탐색하며 적응해 나가는데, 일과 내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즐거움과 어려움을 이해해가면서 이해어휘가 발달 되고, 즐거움을 표현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의해 영아의 사고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표현어휘가 발달된 것으로 보여져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영아들의 어휘발달이 높게 나타났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반응강도는 이해어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반응에 대한 표현이 격렬한 영아가 이해어휘 습득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될 수 있었다는 연구(곽금주 등, 2004)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영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에 대한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빈번하게 말해주고 구체적인 사물을 지칭하거나 사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가르쳐 준 언어적 자극이 영아가 이해하도록 하는 이해능력에 영향을 주어 이해언어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개월에 영아가 반응강도가 높을수록 24개월의 서술어와 문법적 기능어의 수가 더 많았다는 연구(장유경, 이근영, 최유리, 이순목, 2007)결과와 맥을 같이하여, 영아가 부정적인 반응에 표현이 강했을 경우 영아의 떼를 쓰거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영아가 떼를 쓰지 않게 어머니가 말로 해주고 다시 바르게 말해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바른 언어적 행동의 양육행동이 이해어휘에 도움이 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기분은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행복감이 높은 2세의 영아가 7세 때에 8가지 언어 측정치 중 5가지에서 앞서 있었다고 한 연구(Slomkowski, Nelson, Dunn&

Plomin, 1992)결과와 불쾌한 기분을 지니지 않은 영아가 이해어휘가 높았다는 연구(곽금주 등, 2004)결과와 일관되는데, 긍정적 기분을 많이 갖는 순한 기질의 영아가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보다 또래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더 많고(양수정, 2007), 유쾌한 기분을 지닌 영아들이 사람들과 쉽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언어적 표현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료된다. 또한, 13개월 영아의 적응성, 긍정적인 기분, 지속성이 20개월 후 영아의 표현어휘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결과(Dixon & Smith, 2000)와 부분 일치하고, 18개월과 24개월에 기분이 유쾌할수록 표현어휘 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장유경 등, 2007) 결과와도 일관된다. 긍정적 기분을 지닌 영아가 또래와 잘 사귀고 만족스러운 관계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나 느낌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여 표현어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자극에 잘 접근하고, 적응을 잘하며, 어떠한 자극이든지 반응을 잘하고, 긍정적 기분을 많이 갖는 영아가 어휘력이 높았다. 이는 영아의 기질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을 매개로 의사소통을 포함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최혜경, 2013)와 영아의 기질은 어휘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기질이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매개로 어휘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신애선, 2015)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어머니는 Thomas와 Chess(1977)가 제안한 것처럼 영아들의 개별 기질을 고려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늘려 언어발달을 촉진하여야겠다.

둘째, 어머니 양육행동과 영아의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의 관계를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수적 양육행동은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말을 많이 말해주고 물체와 사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가르치는 양육행동을 보였을 때 영아의 언어발달이 훨씬 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후 걸음마 시기의 언어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Bornstein, 1985)결과 및 어머니가 물체 지향적인 가르치는 양육유형을 보일수록 영아의 표현언어가 높았다는 연구(이형민 등, 2008)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할 때, 영아의 언어 발달을 촉진한다고 한 연구(Barnes, Gutfreund, Satterly, & Wells, 1983)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영아와 어머니의 책 읽기를 통한 언어적 상호작용 시 어머니가 영아에게 책 속에 나타나 있지 않은 원인을 추론해 보게 하거나 책 읽기 후 내용을 회상해 보게 하는 질문들이 영아의 어휘 발달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임용순, 2002). 책 읽은 후 어머니의 추론하고 회상해보게 하는 인지적인 도전을 주는 질문이 영아가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게 되어 어휘 발달을 가져온 것이다(Owens, 2013). 즉, 영아의 어휘력 발달을 위해서 어머니가 영아에게 새로운 놀잇감을 제공해주고 집안의 물건들에 이 립표를 붙여주는 언어적 자극을 주는 환경을 다양하게 제시해주고(Wachs & Chan, 1986), 영아의 말에 대한 어머니의 반복이나 확장이 영아의 말을 재구조화 하여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Snow, 1983), 영아의 어휘력 발달을 촉진한 것으로 영아에게 어머니가 가르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영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Bornstein, 1985).

긍정한계선 설정 양육행동은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설명을 하는 과정이 영아에게 언어적 자극으로 작용해 영아의 수용언어 능력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이형민 등, 2008; Bornstein, 1985) 결과와 어머니가 영아에게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영아의 주변 환경을 조직화하여 영아로 하여금 구조화된 환경과 적절히

상호작용하도록 하여 표현어휘 능력을 발달시켰다는 선행연구(Wachs & Chan, 1986)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영아에게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칠 때, 영아는 어머니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말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영아기 영아에게 어머니는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영아는 어머니의 언어나 표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설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영아에게 어머니의 말을 이해는 능력을 도왔고 그로 인해 영아도 말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배우고 모방하고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물과 사건의 특성에 대하여 자극을 주는 정도가 많고 자녀에게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치는 정도가 많을수록 영아의 어휘력이 높았다. 영아기의 언어발달은 출생부터 시작하여 영아와 주 양육자 사이에 주고받는 역동적인 상호작용과정(dynamic interactional process)을 통해 이루어지며, 영아의 언어 발달에서 어머니는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되므로(Snow, 1983), 영아가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어머니는 권위와 규칙 그리고 바른 관습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양육행동이 어휘력 발달에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의 이해어휘 및 표현어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이해어휘에 대해서는 접근-회피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수적 양육행동, 반응강도, 기분의 순으로 설명력이 나타났다. 영아의 이해어휘에 대해서는 접근-회피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행동보다는 영아의 기질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영아의 기질은 생물학적으로 출생 직후부터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발달이 진행되는 동안 쉽게 바뀌지 않지만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화 적합성(goodness-of-fit)’에 비추어 보면(Thomas & Chess, 1977), 어머니가 새로운 상황에 회피적이거나 부정적 정서를 지닌 영아들에게 더욱 더 너그럽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하여 기질적인 개인차를 고려한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유도하여 영아와 어머니의 긍정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영아의 이해어휘 발달을 촉진하여야 하겠다.

영아의 표현어휘에 대해서는 교수적 양육행동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기분, 반응강도, 활동성의 순으로 설명력이 나타났다. 영아의 표현어휘에 대해서는 교수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영아의 기질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양육환경이 지지적이고 언어적 자극이 풍부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아의 언어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Barnes, Gutfreund, Satterly, & Wells, 1983).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을 위해 어머니가 적절한 놀이자료를 제공해주고(Elardo, Bradley, & Caldwell, 1977), 영아의 언어적 반응에 대한 피드백과 질문하기를 많이 해주며 금지와 제지는 적게 하여 어휘발달을 촉진하고(장유경, 2004), 어머니는 아직 언어적 표현이 미성숙한 영아가 시작한 발화를 계속하도록 이끌어주고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영아로 하여금 계속 대화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촉진시켜 표현어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하겠다(Snow, 1983).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휘 폭발이 일어나는 18~24개월의 영아들로 월령을 제한하여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 어휘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영아 어휘력 발달에 대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영아의

이해어휘에 대해서는 영아의 기질이, 표현어휘에 대해서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영아의 내적 특성인 기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질은 선천적 특성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요인이기에 어머니가 영아의 기질을 변화시키려 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기질에 적합하고 조화로운 양육환경을 탐색하고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어린이집의 영아들이다. 이는 가정보육 영아들과는 다른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일반 영아들과는 차별화된 특수한 맥락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가정 보육 영아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결과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 간의 상이한 결과들을 보였다. 추후에는 어머니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지원이나 스트레스 같은 잠재적인 조절 변인 등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 보고로 영아의 기질과 어휘력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영아의 기질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이후 부모의 보고에 영향을 주어(Diener, Goldstein, & Mangelsdorf, 1995), 우울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엄마는 자신의 아기가 더 까다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Mebert, 1991).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부모들은 프랑스의 부모들에 비해 영아의 실제 모습보다 더 과장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강옥경, 김명순, 2011),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적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는 실제 생활이나 상황에서 영아 기질을 교사가 측정 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참고 문헌

- 강옥경, 김명순 (2011). **영아 언어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곽금주, 김민화, 한은주 (2004).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아기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아동학회지**, 25(5), 111-128.
- 김말경 (2011) 어머니 양육행동이 영아 발달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아 성과 기질의 중재적 역할.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정, 이경남 (2011). 영아기와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253-271.
- 김영실, 신애선 (2013). 영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따른 영아의 이해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157-176.
- 김 현 (2010). 영아 기질, 어머니 양육 행동, 교사 상호작용과 영아 언어능력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67-93.
- 박재윤 (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기질-양육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4). **영아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이해**. 서울: 보건복지부.
- 배소영 (2003). 영유아기 의미평가도구 MCDI-K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8(2), 1-14.

- 백경숙 (1996). 영유아기 종일제 보육시설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애선 (2014). 10~2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적 몸짓과 기질 및 어휘력 간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애선 (2015). 영아의 기질이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검증 효과. **유아교육연구**, 35(3), 223-240.
- 임성애 (2003). 영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들: 영아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보육 경험 및 보육의 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수정 (2007). 영아의 기질에 따른 또래 간 상호작용의 차이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 (2008). 만 2세아의 성과 기질, 대상에 따른 비언어적 의사소통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어머니의 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31-146.
-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임용순 (2002). 한국 영아의 어휘발달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유경 (2004).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18개월~36개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91-105.
- 장유경, 성지현 (2011).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24개월 영아의 표현어휘 습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37-154.
- 장유경, 이근영 (2006). 영아의 기질과 초기 어휘 습득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263-276.
- 장유경, 이근영, 최유리, 이순목 (2007). 18~24개월 영아의 기질과 어휘습득: 단기 종단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14, 23-42.
- 장유경, 이근영, 광금주, 성현란 (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27-241.
- 장유경, 최유리, 이근영 (2007). 24개월 영아의 어휘습득, 책읽기 활동과 청각기억 능력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51-65.
- 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최혜정 (2013). 12개월 영아의 기질,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연구**, 34(3), 333-354.
- 정미라, 권정운, 박수경 (2011). 애착안정성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민감성이 12개월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6), 335-352.
- 최선녀 (2015). 어머니 심리적 변인 및 양육행동과 영아기질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구조분석.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희 (2000). 한국 아동의 어휘 발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지영 (2004).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이 남녀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ldwin, D. A. (2000). Interpersonal understanding fuels knowledge acquisition. *Current Direction in Psychological Science*, 9(2), 40-45.
- Barnes, S., Gutfreund, M., Satterly, D., & Wells, G. (1983). Characteristics of adult speech which predict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10(1), 65-84.

- Baumrind, D. (1993). The 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 is not good enough: A response to Scarr. *Child Development, 64*(5), 1299-1317.
- Baumrind, D. (1996). A blanket injunction against disciplinary use of spanking is not warranted by the data. *Pediatrics, 98*(4), 828-831.
- Berk, L. E. (2012). Child development, **아동발달**(이종숙, 이옥, 신은수, 안선희, 이경옥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원판 2008).
- Bloom, L. (1993). The transition from infancy to language: Acquiring the power of express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om, L., Beckwith, R., & Capatides, J. (1988). Developments in the expression of affec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1*(2), 169-186.
- Bornstein, M. H. (1985). How infant and mother jointly contribute to developing cognitive competence in chil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U.S.A), 82*(21), 7470-7473.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O. M.,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Coleman, P. K., Trent, A., Bryan, S., King, B., Rogers, N., & Nazir, M. (2002). Parenting behavior, mothers' self-efficacy beliefs, and toddler performance on the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2), 123-140.
- Diener, M. L., Goldstein, L. H., & Mangelsdorf, S. C. (1995). The role of prenatal expectations in parents' reports of infant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1*(2), 172-190.
- Dixon Jr, W. E., & Smith, P. H. (2000). Links between early temperament and language acquisi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6*(3), 417-440.
- Elardo, R., Bradley, R., & Caldwell, B. M. (1977).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language development at age three. *Child Development, 48*(2), 595-603.
- Fenson, L., Dale, P. S., Reznick, J. S., Bates, E., Thal, D. J., & Pethick, S. J. (1994). Variability in early communicative develop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5, Serial No. 242).
- Fox, S. E., Levitt, P., and Nelson III, C. A. (2010). How the timing and quality of early experiences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brain architecture. *Child Development, 81*(1), 28-40.
- Fullard, W., McDevitt, S. C., & Carey, W. B. (1984). Assessing temperament in one to three years of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2), 205-217.
- Goswami U. (2010). Cognitive development, **인지발달**(정명숙, 박영신, 이현진, 김경미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원판 1998).
- Hoff, G. E. (2001). Language development, **언어발달**(이현진, 박영신, 김혜리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원판 1998).
- Hoff, G. E. (2003).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influence: Socioeconomic status affects early vocabulary development via maternal speech. *Child Development, 74*(5), 1368-1379.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2), 418-433.
- Huttenlocher, P. R. (1974). Dendritic development in neocortex of children with mental defect and

- infantile spasms. *Neurology*, 24(3), 203-203.
- Huttenlocher, J., Haight, W., Bryk, A., Seltzer, M., & Lyons, T. (1991). Early vocabulary growth: Relation to language input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236-248.
-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infant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old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5), 1314-1325.
- Mebert, C. J. (1991). Dimensions of subjectivity in parents' ratings of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2(2), 352-361.
- Owens, R. E. (2013). Language development, 언어발달(이승복, 이화란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판 1998).
- Pae, S. (1993). Early vocabulary in Korean: Are nouns easier to learn than verb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Kansas, USA.
- Justice, L. M., Bowles, R., Pence, K., & Gosse, C. (2010). A scalable tool for assessing children's language abilities within a narrative context: The NAP (Narrative Assessment Protoc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5(2), 218-234.
- Saslow, E. R. (1993). *Temperament and day care: An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expression across sett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 Slomkowski, C. L., Nelson, K., Dunn, J., & Plomin, R. (1992). Temperament and language: Relations from toddlerhood to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090-1095.
- Snow, C. E. (1983). Literacy and language: Relationships during the preschool year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3(2), 165-189.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achs, T. D., & Chan, A. (1986).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action, as seen in environmental correlates of infants' communication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57(6), 1464-1474.
- Whitehurst, G. J., Falco, F. L., Lonigan, C. J., Fischel, J. E., Debaryshe, B. D., Valdez-Menchaca, M. C., & Caufiels, M. (1998).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522-559.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toddler'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the development of vocabulary ability.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299 infants between the ages of 18 and 24 months and their mothers in 47 day care centers in I city, Jeollabukd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infant's temperament and vocabulary based on the composition of temperament, approach-avoidance, adaptability, and mood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and response intensit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receptive vocabulary. Second, according to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s vocabulary ability based on the sub-factor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structional parenting behavior and setting-limits parenting behavio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hird, according to the effects of infant'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the development of infant's vocabulary ability, as for the understanding of vocabulary, the explanation power of approach-avoidance is the highest, followed by instructional parenting behavior, response intensity, and mood. As for expressive vocabulary, the explanation power of instructional parenting behavior is the highest, followed by mood, response intensity and activity. In the development of infant's vocabulary ability, it was found that receptive vocabulary was affected the most by approach-avoidance, and expressive vocabulary was affected the most by instructional parenting behavior. Mothers will have to have interrelation skills suitable for temperament for the development of infant's receptive vocabulary, and have parenting behavior expressing the traits of things and events for the development of expressive vocabulary.

Key words infant's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fant's vocabulary ability

논문투고 15.12.15
수정원고접수 16.01.13
최종게재결정 16.01.26